

화엄경私記 3권 번역돼 나온다

조선 후기 화엄학 분야의 대강백인 설프상연(1707-1791)과 그의 제자 인악의 침(1746-1796), 연담 유일(1720-1799) 스님이 지은 화엄경 사기(私記) 3권이 번역돼 발간된다. 이 달 말 출간되는 화엄십지품(華嚴十地品) 7본사기(七家本私記)는 봉선사주지일번 농암학림 2기 학인들이 3년 동안 이 세 스님의 사기 중 현재 전해는 여러 소장본을 비교해 내용을 정서하고 토를 단 작업 끝에 나왔다. 화엄경 사기로 전하는 목록이나 전적은 많지만 그 내용이 일반에 공개되기는 처음이라 화엄학 연구자들을 설레게 하고 있다.

의 대표적 사기다. <삼가본사기>는 바로 이 세 저술을 모았다.

우리 나라 특유의 경학 연구 방식은, 사기와 과도(科圖), 내용을 소재목 별로 나눈 일종의 분류표를 함께 펼쳐 놓고 <청량소초>를 보면서 <화엄경>을 공부한다. 하지만 다른 분야와는 달리 화엄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사기가 널리

번번의 오·탈자를 교정하고, 내용상 오류에 대한 자신의 견해, 다른 전거들과의 비교 등을 소상히 기록해 놓은 일종의 강의 노트인 셈인데, 이들 사기의 저자가 대강백들이란 만큼 내용을 정리하면서 그 정확성과 깊이에 놀랄 때가 많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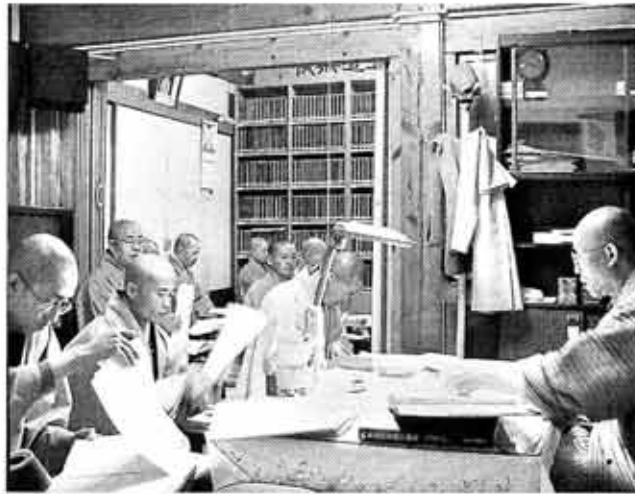
또 하나 <삼가본사기>는 우리의 전

일종의 주석서... 화엄이해 지침서 내용 첫 공개, 4년후에 완역

쓰이지 못했다. 의도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내용 자체를 몰랐기 때문이다. 초서와 비슷한 형태로 흘러 쓰다 보니 사기를 지은 스님들마다 '~해'가 있을 정도로 읽기가 힘들기도 하다. 누가 썼는지 밝혀진 게 별로 없고, 전체 내용이 전하는 것도 드물다.

초서를 정서하고 토를 단 원민 스님(농암학림 2기 연구생)은 "사기는 강원의 강사들이 <화엄경>을 가르치면서

통적인 역장(譯章) 방식에 의해 번역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불조통기(佛祖統記)>에 나오는 것처럼 9개의 역할을 다 나누지는 않았지만, 원민 스님이 초서를 해독해 옮겨 쓰고 토를 달던 경우 단계, 강주 월운 스님이 해독과 번역이 바른가를 검토해 수정하고(檢義), 이를 갖고 학림 스님들이 공부하면서 잘못된 내용을 지적했다(批訂). 마지막 으로 강주 월운(동국여경원진) 스님이



강주 월운 스님과 농암학림 2기 스님들이 정서(整訂)한 사기(私記)의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내용을 확정했다.

월운 스님은 "사기의 출현이 학인들의 학구 기능을 저하시킨 율고화의 진원적인 병폐라 지적하기도 하지만 요즘 같이 문장력이 약해져서 때로는 한치 앞도 못나가고, 망망대해에 표류하는 심정일 때, 과도는 나침반과 같아서 방향을 가늠하게 하고, 사기는 해도와 같아서 주변정세를 알게 해 주는 기능이 있다"

고 간행사에서 말했다.

4×6배판 900여 쪽에 달하는 <삼가본사기>는 <화엄경> 사기 중 '십지품' 부분만을 낸 것이다. 화엄경 사기 전체를 다 끝내려면 앞으로 4년 정도 더 기다려야 한다. 완성되면 16절지 2600여 장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 사기 전체가 정리되면 <한국불교전서>에도 수록된다.

학술담당=권영진 기자 jiny@buddhapis.com

高僧 다시보기

보우 스님과 문정왕후



허응당 보우 스님 전영(부분, 서울 봉은사 소장)

조선 중기는 우리 역사상 불교계가 가장 탄압을 받던 시기였다. 이러한 때에 불교를 중흥시켰던 스님이 바로 보우(普雨, 1506년-1565년) 스님이며, 법호를 나암(懶懶), 당호를 허응당(許應堂)이라 했다. 중종 1년(1506) 무렵에 태어나 15세에 금강산의 한 사찰에 들어가 5년간 수도 정진하면서 선교양종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성리학적 유교사회에서 불교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금강산에서 수륙재를 행할 당시 승려나 신도들 사이에서 '살아 있는 부처님'이라 존경받았고 후대의 실학자 지봉 이시공도 스님의 글재주를 높게 인정했다. 하지만 당시의 사림과 유생들은 스님을 고려말 신돈보다 더 심한 요승이나 괴승으로 몰아붙였을 정도로 당시의 억울분위는 최악으로 가고 있었다.

때마침 나이 어린 명종이 즉위하면서 수렴청정을 하게된 문정왕후는 스님과 손을 잡고 흥불사책을 전개하였다. 명종 3년 12월 스님은 봉은사 주지로 임명되면서 연산군 이전의 선교양종과 승과를 부활

15년간 興佛운동... 중흥기틀 서산·사명대사등 고승 배출

시켰고, 다음 해 수진(守眞) 스님과 더불어 불교를 중흥하고자 했다. 이에 빚바치는 유생들의 반대 상소에도 불구하고 스님은 "만약 지금 내가 없다면 영원히 불법(佛法)은 없어질지도 모른다"며 불퇴전의 자세를 굽히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스님은 전국의 300여 사찰을 국가 공인사찰로 지정해 보호하였고 부활된 도참제에 의해 2년간 승려 4000여명을 선별해서 서산대사로 알려진 휴정 스님이나 유정 스님 같은 고승을 배출하여 불교중흥의 기틀을 세웠다.

스님은 화엄사를 중건하여 대규모 무차대회를 개최했으나 왕후의 죽음을 계기로 승직을 박탈당하고 재주로 유배되어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스님이 남긴 저술은 <허응당집> <나암잡지> <수월도량공화보사어한빈주몽중문답> <권념요목>이 있다. 스님은 선과 화엄을 융합하여 선교일체에서 한 걸음 나아간 선교일체설(禪教一體說)과 성리학의 사상적 체제인 천인합일설(天人合一說)을 불교의 입장에서 설명한 일정설(一定說)을 주창하였다. 이는 불교계뿐만 아니라 한국사상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한 사상적 기반 위에서 추진된 스님과 문정왕후의 흥불운동은 비록 15년간에 그쳤지만 휴정과 같은 고승을 배출함으로써 억울시대의 조선왕조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불교의 전성시대를 이루게 하였고 향후 불교의 명맥을 잇게 하였다.

한양규/동국대 강사



강화도에서 규모가 가장 큰 흥왕사터. 문화재 지정이 시급한 불교유적지다.

강화도 불교유적지 52곳

조계종 문화유산 발굴조사단 보고서

'강화도' 하면 재작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인돌 유적과 조선시대 외적의 침입에 대비해 만든 군사시설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단장 정래이)은 강화도 460개 문화유적을 조사해 최근 발간한 <강화도 문화유산> 지표조사 보고서를 보면 고인돌(24개)이나 관방유적(129개) 외에도 76개의 종교유적이 있으며 이 가운데 52곳이 불교유적이다. 현존 사찰 7곳에, 절터 39곳, 암자터 1곳이 확인됐고, 석탑 1기, 석불 2기, 마애불 1기, 부도 1

기가 전한다. 고려시대 절터인 화양사터와 정미사터, 월구산 무명사터, 법장사터 등 절터 4곳은 이번엔 새로 절 이름과 위치가 파악됐다. 인사리 석불입상도 새롭게 발견된 유적이다. 그러나 고려시대 절터인 흥왕사터와 원흥사터(문화재자료 9호), 하점면 석조여래입상(보물 615호) 등 11개 불교유적은 복원 및 정비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는 인천시의 의뢰를 받아 지난 해 4월부터 올 1월까지 이뤄졌다.

회암사터 대대적 정비

경기도, 보호구역확대 등 2008년까지 580억 들여

발굴조사가 거듭될수록 조선조 왕실 사찰로서의 위상을 드러내고 있는 경기도 양주 회암사터(국가사적 128호)가 대대적으로 복원 정비된다.

경기도는 580억 원을 들여 이미 지정된 보호구역(10만 평)에 사유지를 매입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추가 발굴조사, 유물전시관 건립, 발굴된 유적지에 대한 정비 등 대대적인 복원·정비 사업을 2008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4차 발굴조사시 보광전 건물터에서 출토된 용머리 기와.

6일 발표된 회암사터 종합정비계획에 따르면 출토 유물의 보존관리를 위해 설치되는 지하 1층, 지상 1

'은평구의 불교문화' 발간



발간했다. 4×6배판 190여 쪽에 달하는 <은평구의 불교문화>는 은평구의 전통사찰인 수국사와 삼천사, 진관사의 역사와 인물, 전각, 문화재, 현재 모습을 사진과 함께

설명하고 있다. 임진왜란 당시 북한 상성에서 활약했던 승군에 관한 내용을 따로 떼어내 소개했으며 자료편에는 수국사와 삼천사, 진관사에 대한 기록이 들어있는 사료를 실었다.

월남사터 모전석탑 등

보물 4건 명칭 바뀌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최근 전남 강진 월남사터 모전석탑(보물 298호)을 월남사터 삼층석탑으로, 월남사터 석비(보물 313호)는 월남사터 진각각사비로, 충북 담양 읍



보물 298호 월남사터 삼층석탑.

내리 석당간(보물 506호)은 담양읍 석당간으로, 담양 읍내리 오층석탑(보물 506호)은 담양읍 오층석탑으로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좋은 중무관리가 공짜 라니..!

상황 중무 관리 프로그램 무료 보급!

상황모바일버전 이래서 좋다!

- ▶ 문자메세지 발송 - 한번에 수천명에게 문자메세지 발송
- ▶ E-mail 발송 - 법문·인내문 등 E-mail 발송 가능
- ▶ 음성·음악·벨소리 전송 - 모닝콜 가능
- ▶ 기존 데이터 자동 변환
- ▶ 각종 인쇄물 글자크기 조절 가능
- ▶ 실시간 불교뉴스, 각종단 기사판영림
- ▶ 관리비 없이 자동 업그레이드
- ▶ 사찰과 신도개방의 인터넷 네트워크 영성



상황 중무관리 설치 방법

- 전화주문 : 02)722-4162(현대불교신문사)
- ☺
- 통신료 20만원 선금금 납입 / 국민은행 006-01-0773-240(현대불교신문사)
- ☺
- 우편으로 CD받기
- ☺
- 인내문따라 설치
- ☺
- 인증받기 02)365-5933(지우커뮤니케이션)
- ☺
- 기존의 D/B 자동 이전

타 중무관리 프로그램과의 비교

구분	상황중무관리	G	D	K
가격	무료	320만원	150만원	무료
관리비	무료	2만원/월	3만원/월	20만원/공회비
업그레이드	무료	유료	유료	
연립가능	불교뉴스, 기사판영	없음	없음	없음
모바일버전	30명/2인용	가능없음	가능없음	가능없음

- 무료보급 :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722-4162
- 기술개발 : 지우커뮤니케이션 02)365-5933

꺼지지 않는 연등, 한글대장경 봉안

을 초파일에는 모든 사찰이 한글대장경을 봉안합니다



부다피아하나카드에 500명이 가입하는 사찰에는 한글대장경 1질(4책 77만원)을 봉안 해 드립니다.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02-737-8881, 02-722-4162 팩스 : 02-737-0697